

“태풍에도 침수된 적 없었는데”...광주 물난리 주민들 ‘분통’

“20년 살면서 이런 적 없었는데, 비 많이 오는 날에는 변기통에서 물이 올라와 잠을 못 자요.”

13일 광주 북구 중흥3동 주택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폭우가 쏟아진다는 예보에 잠을 설쳤다.

지난 10일 집 하수구와 변기통에서 물이 차올라 동네 주택들과 도로가 한차례 침수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동네에서 20년째 살던 한 주민은 “그동안 아무리 비가 많이 내리고 태풍이 오더라도 단 한 번도 침수가 됐던 적은 없었었다”고 말했다.

이 주택가에는 장대비가 쏟아진 이날 오전 6시20분쯤 또다시 물이 차올랐다.

집 마당이 침수되기까지 5분 채 안 걸렸고, 문 밖을 나서 도로 침수는 10분도 채 안 됐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물이 다 빠진 뒤 각 주택의 수도 계량기 뚜껑은 물에 다 떠내려가 없어졌고, 그 안은 흙으로 뒤덮여

북구 중흥3동 “아파트 현장 하수관로 교체 때문”

아파트 조합·공사관계자 ‘인정’...대책 논의

있었다.

인근 가게들의 피해는 더 심했다.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김동원씨는 “가게 안에 물이 가득 차 컴퓨터와 냉장고, TV 등이 모두 고장났다”며 “홍보 팸플릿과 계약서마저 물에 젖어 못 쓰게 됐다”고 호소했다.

결혼중개업체 사무실도 마찬가지였다. 가게 안에 오물이 가득 차 물을 다 뺐 뒤에도 비가 멈추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물이 들어오는 상황이었다.

간판 가게를 운영하는 최준연씨는 “지난주 금요일(10일)에 이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 짐울하다”며 “어차피 비가 또 오니 물을 빼고, 흙과 오물로 가득한 바닥을 닦

아도 소용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주민들은 이같은 비 피해가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사 도중 기존에 있던 하수관로를 빼고 작은 하수관로를 사용하면서 ‘비 피해’를 입었다는 것.

지난 10일 교체된 하수관로는 쏟아지는 비를 소화하지 못하고 결국 터져 도로와 주택, 가게 등이 침수됐다. 당시 13가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과 자치구에서 물을 빼주고 방역까지 해준 상황이었으나, 하수관로가 해결이 안 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실은 아파트 지역주택조합과 공사 관계자도 인정하고 대책을

논의중이라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주민들은 “아파트 측의 대책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과 보상이 없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광주 북구청 관계자는 “자세한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다.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하지 않겠냐고 건설조합 측에 전달했다”며 “재발 방지 배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전남기상청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강수량은 구례 185.5mm, 함평 월야 167.5mm, 담양 166.5mm, 여수 164.9mm, 고흥 도양 158.5mm, 나주 154.5mm, 장성 153.5mm 등이다.

광주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143.6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정승호 기자



광주와 전남지역에 최대 150mm의 장대비가 쏟아진 13일 오전 광주 북구 중흥3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가 물에 잠겨있다. (독자 제공)



“비가 오는 날에도 실 수 없다” 13일 오전 광주 광산구청 앞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문진표를 적고 있다.

5·18 당시 계엄사령관 ‘광주 전두환 재판’ 증언대 설까

20일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공판기일

‘5·18 헬기사격’을 증언하고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 씨(89)의 재판이 오는 20일 진행된다.

13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20일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 법정 201호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전씨 측이 신청

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씨 측은 장사복 전 전교사 참모장, 이희성 5·18 당시 계엄사령관이자 전 육군 참모총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이들의 출석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전씨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재판에서도 이 전 총장과 장 전 참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두사람 모두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전씨의 재판 방청권을 20일 오후 1시10분부터 선착순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방청권은 33석으로 제한되며 마스크 미착용자는 법정 입장이 제한된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피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피렵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전 강화했는데’...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망사고 발생

스마트워치 착용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

포스코 광양제철소 코크스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소방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쯤 포스코 광양제철소 코크스 공장에서 설비를 담당하던 50대 A씨가 정비작업 도중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병원 도착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지난 8일 ‘스마트워치’를 도입해 현장 근무자의 안전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포스코 스마트워치는 현장 근무자의 넘어짐, 심박이상, 추락 등 신체 이상이 실시간 감지되면 주변

동료들에게 즉각 구조신호를 보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스마트워치 착용 대상 근로자는 포항과 광양 제철소에서 고위험 개소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근무자 1200명”이라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코로나19자가격리 위반 20대 집행유예 2년

정당한 사유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자가격리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6시40분쯤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5월13일까지 자신의 주소지인 전남 나주시에 자가격리 조치됐다.

하지만 A씨는 4월29일 오전 7시부터 4월20일 오후 3시57분쯤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인천 중구에 있는 한 호텔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식당 일

대를 돌아다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고 나주로 이동했다.

A씨는 또 자가격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6일 오후 7시20분쯤 주소지에서 이탈해 나주시의 한 체육관 인근으로 이동했다. A씨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유나 기자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